

目次

東洋古典譯註叢書を 발간하면서

凡例

參考書目

目次

卷9 論

01. 周公論 주공에 대한 논 / 15
02. 伯夷論 백이에 대한 논 / 20
03. 三聖人論 세 성인에 대한 논 / 24
04. 季子論 계자에 대한 논 / 30
05. 子貢論 자공에 대한 논 / 35
06. 莊周論 上 장주에 대한 논 上 / 39
07. 莊周論 下 장주에 대한 논 下 / 43
08. 九卦論 구괘에 대한 논 / 45
09. 禮論 예에 대한 논 / 49
10. 禮樂論 예악에 대한 논 / 53

卷10 論・原・說・解・雜類

01. 諫官論 간관에 대한 논 / 69
02. 材論 인재에 대한 논 / 74
03. 原過 과실의 근원 / 79
04. 原敎 가르침의 원리 / 82

10. 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 2

- 05. 性說 성에 대한 설 / 85
- 06. 進說 인재의 등용에 대한 설 / 91
- 07. 復讐解 복수에 대한 해 / 96
- 08. 同學一首別子固 동학 자고에게 글 한 수를 지어주며 작별하다 / 99
- 09. 書李文公集後 《이문공집》의 뒤에 쓰다 / 101
- 10. 讀江南錄 《강남록》을 읽고 / 104
- 11. 讀孔子世家 〈공자세가〉를 읽고 / 109
- 12. 讀孟嘗君傳 〈맹상군전〉을 읽고 / 110
- 13. 讀刺客傳 〈자객열전〉을 읽고 / 111
- 14. 讀柳宗元傳 〈유종원전〉을 읽고 / 114
- 15. 書洪範傳後 〈홍범전〉의 뒤에 쓰다 / 115

卷11 碑・狀

- 01. 翰林侍讀學士知許州軍主事梅公神道碑 한림시독학사 지허주군주사를 지낸 매공의 신도비 / 119
- 02. 司農卿分司南京陳公神道碑 사농경 분사 남경을 지낸 진공의 신도비 / 125
- 03. 虞部郎中贈衛尉卿李公神道碑 우부낭중 증위위경을 지낸 이공의 신도비 / 133
- 04. 廣西轉運使孫君墓碑 광서전운사를 지낸 손군의 묘비 / 139
- 05. 伍子胥廟銘 오자서의 묘명 / 145
- 06. 兵部知制誥謝公行狀 병부 지제고를 지낸 사공의 행장 / 148
- 07. 彰武軍節度使侍中曹穆公行狀 창무군절도사 시중을 지낸 조목공의 행장 / 153
- 08. 魯國公贈太尉中書令王公行狀 노국공 증태위 중서령을 지낸 왕공의 행장 / 161

卷12 墓誌銘

- 01. 給事中孔公墓誌銘 급사중을 지낸 공공의 묘지명 / 174
- 02. 太子太傅田公墓誌銘 태자태부를 지낸 전공의 묘지명 / 179
- 03. 大理寺丞楊君墓誌銘 대리시승을 지낸 양군의 묘지명 / 189
- 04. 秘閣校理丁君墓誌銘 비각교리를 지낸 정군의 묘지명 / 191
- 05. 廣西轉運使蘇君墓誌銘 광서전운사를 지낸 소군의 묘지명 / 196

- 06. 比部陳君墓誌銘 비부원의랑을 지낸 진군의 묘지명 / 201
- 07. 朝奉郎守國子博士知常州李公墓誌銘 조봉랑 수국자박사 지상주를 지낸 이공의 묘지명 / 205
- 08. 太常博士曾公墓誌銘 태상박사를 지낸 증공의 묘지명 / 209
- 09. 內翰沈公墓誌銘 내한을 지낸 심공의 묘지명 / 215

卷13 墓誌銘

- 01. 戶部郎中贈諫議大夫曾公墓誌銘 호부낭중 증간의대부를 지낸 증공의 묘지명 / 221
- 02. 秘書丞謝師宰墓誌銘 비서승을 지낸 사사재의 묘지명 / 230
- 03. 兵部員外郎馬君墓誌銘 병부원의랑을 지낸 마군의 묘지명 / 233
- 04. 主客郎中知興元王公墓誌銘 주객낭중 지흥원을 지낸 왕공의 묘지명 / 237
- 05. 虞部郎中晁君墓誌銘 우부낭중을 지낸 조군의 묘지명 / 241
- 06. 屯田員外郎邵君墓誌銘 둔전원의랑을 지낸 소군의 묘지명 / 247
- 07. 度支郎中葛公墓誌銘 탁지낭중을 지낸 갈공의 묘지명 / 248
- 08. 尙書祠部郎中集賢殿修撰蕭君墓誌銘 상서사부낭중 집현전수찬을 지낸 소군의 묘지명 / 253
- 09. 左班殿直楊君墓誌銘 좌반전직을 지낸 양군의 묘지명 / 259
- 10. 右領軍衛將軍致仕王君墓誌銘 우령군위장군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왕군의 묘지명 / 263
- 11. 內殿崇班錢君墓碣 내전승반을 지낸 전군의 묘갈 / 267

卷14 墓誌銘

- 01. 荊湖北路轉運判官尙書屯田郎中劉君墓誌銘并序 형호북로전운판관 상서 둔전낭중을 지낸 유군의 묘지명 병서 / 270
- 02. 尙書屯田員外郎仲君墓誌銘 상서둔전원의랑을 지낸 중군의 묘지명 / 276
- 03. 京東提點刑獄陸君墓誌銘 경동제점형옥을 지낸 육군의 묘지명 / 279
- 04. 節度推官陳君墓誌銘 절도추관을 지낸 진군의 묘지명 / 285
- 05. 泰州海陵縣主簿許君墓誌銘 태주 해릉현주부를 지낸 허군의 묘지명 / 287
- 06. 葛興祖墓誌銘 갈흥조의 묘지명 / 289
- 07. 臨川吳子善墓誌銘 임천 오자선의 묘지명 / 291

12 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 2

- 08. 胡君墓誌銘 호군의 묘지명 / 294
- 09. 王深父墓誌銘 왕심보의 묘지명 / 296
- 10. 王逢原墓誌銘 왕봉원의 묘지명 / 299
- 11. 金溪吳君墓誌銘 금계 오군의 묘지명 / 302
- 12. 馬漢臣墓誌銘 마한신의 묘지명 / 303
- 13. 吳處士墓誌銘 오처사의 묘지명 / 305
- 14. 孔處士墓誌銘 공처사의 묘지명 / 308
- 15. 建安章君墓誌銘 건안 장군의 묘지명 / 311

卷15 墓誌銘

- 01. 尙書都官員外郎侍御史王公墓碣銘 상서도관원의랑 시어사를 지낸 왕공의 묘갈명 / 315
- 02. 贈尙書刑部侍郎王公墓誌銘 상서형부시랑에 추증된 왕공의 묘지명 / 321
- 03. 贈光祿少卿趙君墓誌銘 광록소경에 추증된 조군의 묘지명 / 325
- 04. 王平甫墓志 왕평보의 묘지 / 328
- 05. 亡兄王常甫墓誌銘 망형 왕상보의 묘지명 / 330
- 06. 王補之墓誌銘 왕보지의 묘지명 / 333
- 07. 臨川王君墓誌銘 임천 왕군의 묘지명 / 335
- 08. 曾公夫人萬年太君黃氏墓誌銘 증공부인 만년태군 황씨의 묘지명 / 338
- 09. 僊居縣太君魏氏墓誌銘 선거현 태군 위씨의 묘지명 / 340
- 10. 高陽郡君齊氏墓誌銘 고양군군 제씨의 묘지명 / 343
- 11. 建陽陳夫人墓誌銘 건양 진부인의 묘지명 / 345
- 12. 永嘉縣君陳氏墓誌銘 영가현군 진씨의 묘지명 / 347
- 13. 鄭公夫人李氏墓誌銘 정공부인 이씨의 묘지명 / 349
- 14. 僊源縣太君夏侯氏墓碣 선원현태군 하후씨의 묘갈 / 351

卷16 墓表・祭文

- 01. 太常博士鄭君墓表 태상박사 정군의 묘표 / 354
- 02. 寶文閣待制常公墓表 보문각대제 상공의 묘표 / 357
- 03. 建昌王君墓表 건창 왕군의 묘표 / 359

04. 貴池主簿沈君墓表 귀지주부 심군의 묘표 / 361
05. 處士征君墓表 처사 정군의 묘표 / 365
06. 鄱陽李夫人墓表 파양 이부인의 묘표 / 367
07. 祭范穎州文 仲淹 범영주 중엄의 제문 / 369
08. 祭周幾道文 주기도의 제문 / 374
09. 祭曾博士易占文 박사 증억점의 제문 / 375
10. 祭李省副文 壽朋 성부 이수봉의 제문 / 377
11. 祭高師雄主簿文 주부 고사웅의 제문 / 378
12. 祭丁元珍學士文 학사 정원진의 제문 / 379
13. 祭歐陽文忠公文 구양문충공의 제문 / 380
14. 祭張安國檢正文 검정 장안국의 제문 / 383
15. 祭東向原道文 속향 원도의 제문 / 384
16. 祭王回深甫文 심보 왕희의 제문 / 386

附 錄

1. 韓國 古文獻 所載의 王安石 關聯資料 / 388
2. 韓·中·日의 王安石 研究圖書 및 論文 目錄 / 403

宋大家王文公文抄 卷9

論

01. 周公論^{*} 주공에 대한 논

* 《禮記正義》의 孔穎達 疏에 “《禮記》〈明堂位〉에 이르기를 ‘周公이 攝政한 6년 동안에 禮와 樂을 제정하고 천하에 度量衡의 기준을 반포하였다. 단 그때에 제정된 禮는 〈周官〉과 〈儀禮〉이다.’ 하였다.〔周公攝政六年 制禮作樂 頒度量於天下 但所制之禮 則周官儀禮也〕”라 하였다.

이 글에서 말한 黨庠·遂序·國學에서 養賢敎士하였다는 것은 《禮記》〈學記〉에 나오는 것으로, 〈周官〉과 〈儀禮〉에는 周公이 養賢敎士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은 없는데, 王안석은 漢代에 戴聖이 撰한 《禮記》를 周公이 지은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논지를 전개한 것이다.

‘論’은 文體의 명칭으로, 事理를 闡明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議論文, 즉 論述文이다.

論確而辨^하고 亦儘圓轉^{이라}

論旨가 정확하고 사리를 명확하게 分辨하였으며, 文意의 展開가 지극히 圓滿하다.

甚哉^라 荀卿¹⁾之好妄也^여 載周公之言^하야 曰 吾所執贄而見者 十人^{이요} 還贄而相見者 三十人^{이요} 貌執者 百有餘人^{이요} 欲言而請畢事 千有餘人²⁾이라하니 是誠周公之所爲^면 則何周公之小也^오

심하였도다! 荀卿이 理致에 어긋난 것을 좋아하였음이여! 周公의 말씀이라 하면서 수록해놓기를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기에 만나본 사람이 10인이고, 예물을 돌려보내고 대등한 예를 갖추어 만나본 사람이 30인이며, 내가 예를 갖추고서 뵈 분이

백여 인이고, 말하려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다 마치도록 요청한 사람이 천여 인이었다.” 하였는데, 이것이 진실로 주공께서 하셨던 일이라면, 주공이 어찌 그 다지도 자질구레하였단 말인가!

- 1) 荀卿：荀卿(B.C. 313~B.C. 238)의 이름은 況이고, 戰國時代의 저명한 思想家로 《荀子》의 著者이다. 당시에 그를 높여서 荀卿이라 불렀다.
- 2) 載周公之言……千有餘人：이 내용은 《荀子》〈堯問〉에 보인다.

夫聖人爲政於天下也^에 初若無爲¹⁾於天下나 而天下卒以無所不治者^는 其法誠修也^라 故三代之制^는 立庠於黨^{하고} 立序於遂^{하고} 立學於國²⁾ ^{하야} 而盡其道^{하야} 以爲養賢教士之法^{하니} 是士之賢^이 雖未及用^{이나} 而固無不見尊養者矣^니 此則周公待士之道也^라 誠若荀卿之言^{이면} 則春申孟嘗之行³⁾ 亂世之事也^라 豈足爲周公乎^아 且聖世之士⁴⁾ ^는 各有其業^{하야} 講道習藝^에 患日之不足^{이어} 豈暇遊公卿之門哉^아 彼遊公卿之門^{하야} 求公卿之禮者^는 皆戰國之奸民^{이니} 而毛遂侯嬴之徒也⁵⁾ ^{니라} 荀卿^이 生於亂世^{하야} 不能考論先王之法^{하야} 著之天下^{하고} 而惑於亂世之俗^{하야} 遂以爲聖世之士⁶⁾ ^도 亦若是而已^라 ^{하니} 亦已過也^{로다} 且周公之所禮者 大賢與^인 ^댄 則周公^이 豈唯執贄見之而已^{리오} 固當薦之天子^{하야} 而共天位也^요 如其不賢^{하야} 不足與共天位⁷⁾ ^인 ^댄 則周公^이 如何其與之爲禮也^{리오}

대저 聖人이 天下를 다스리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천하를 위해 하는 일이 없는 듯 한데도 천하가 마침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은, 그 法이 진실로 完美하게 시행되어서이다. 그러므로 三代之 制도는 교육기관으로 黨에는 庠을 설립하고, 遂에는 序를 세우고, 國都에는 學을 세워서, 이로써 그 道를 극진히 하여 賢者를 양성하고 士를 가르치는 法을 정하니, 이렇게 양성된 士들의 현명함이 비록 벼슬에 임용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진실로 높이 우대받고 봉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이것이 周公께서 선비들을 대우하는 방법이었다.

周公이 정말로 荀卿이 한 말처럼 하셨다면 이는 春申君이나 孟嘗君이 亂世에 한 일처럼 행한 것이니, 어찌 죽히 周公다운 행위였다 할 수 있겠는가. 또한 聖人이 다스리는 시대의 士는 각기 그들이 맡은 일이 있어서 道를 講究하고 技藝를 익히는 데도 시

간이 부족한 것을 근심하는데, 어찌 公卿의 집 문을 드나들 겨를이 있었겠는가. 공경의 집 문을 드나들면서 공경으로부터 예우받기를 추구한 사람들은 모두 戰國時代의 奸邪한 백성들로서, 毛遂나 侯嬴 같은 무리들이었다.

荀卿은 亂世에 살았으므로 先王이 세운 法度を 고찰하고 論證하여 이를 천하에 드러낼 수가 없었고, 亂世의 末俗에 현혹되어 드디어 聖人이 다스리던 시대의 士도 이와 같았을 뿐이라고 여긴 것이니, 이 또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 또한 周公께서 禮를 갖추어 대한 사람들이 크게 어진 사람들이었다면, 주공께서 어찌 예물을 받고 그들을 만나 보는 데 그쳤겠는가. 진실로 마땅히 그들을 천자에게 천거하여 하늘이 내려준 官職을 함께 맡았을 것이고, 만약 그들이 현명하지 못하여 관직을 함께 맡기에 부족하였다면, 주공께서 어찌 그들과 예를 갖추어 대하였겠는가.

- 1) 無爲 : 여기에서 말한 無爲는 清靜虛無 順應自然하는 道家的 無爲가 아니라, 選賢任能 以德化人하는 儒家的 無爲를 칭하며, 이는 곧 儒家的 養賢教士의 방법이 었다.
- 2) 三代之制……立學於國 : 《禮記》〈學記〉에 “옛날의 가르침은 25家에는 塾이 있었으며, 黨에는 庠이 있었으며, 遂에는 序가 있었으며, 國中에는 學(太學)이 있었다.[古之教者 家有塾 黨有庠 術有序 國有學]”라고 보인다.

옛날에 25가를 閭라 하여 한 마을을 이루었는데, 마을 앞에는 문이 있고 문 옆에는 塾이 있어, 백성들 중에 집에 있는 자는 아침저녁으로 속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500가를 黨이라 하고, 당의 학교를 庠이라 하니, 여의 속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가르쳤다.

2,500가를 州라 하고 주의 학교를 序라 하니, 당의 학교 상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가르쳤다.

천자가 도읍한 곳과 제후국의 國中の 학교를 國學이라 이르니, 王公의 元子와 衆子 및 卿·大夫·士의 아들과 뽑혀 올라온 우수한 선비들을 가르쳤다.

- 3) 春申孟嘗之行 : 어진 사람을 禮로 받들고 선비들을 공손하게 대하여 私적으로 門客을 기른 행위를 말한다. 春信은 春信君이다. 楚나라의 公子로 門下에 食客이 三千이었다. 孟嘗은 戰國時代 四大公子의 한 사람인 孟嘗君 田文이다. 齊나라 사람으로 食客이 三千이었고, 그 가운데 鷄鳴狗盜 등의 奸邪하고 豪俠한 무리가

많았으며, 齊·秦·魏 三國의 재상을 겸하기도 하였다.

4) 士 : 저본에 ‘事’로 되어 있는데, 《臨川集》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5) 毛遂侯嬴之徒也 : 毛遂는 戰國時代 趙나라 사람으로, 四大公子의 한 사람인 平原君의食客이었다. 秦이 趙의 수도 邯鄲을 포위하자, 楚에 사신으로 간 평원군을 도와서 楚가 趙를 구원하도록 하였다. 侯嬴는 戰國時代 魏나라 사람으로, 70이 되도록 大梁의 城門을 지키는 小吏이었다. 信陵君이 그를 상객으로 모시고, 그의 계책을 써서 秦君을 격파하였다.

6) 士 : 저본에 ‘事’로 되어 있는데, 《臨川集》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7) 天位 : 지위와 직책은 군주가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모두 하늘이 백성을 기르고 다스리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것이라 하여, ‘天’자를 붙인 것이다.

《孟子》〈滕文公 下〉에 “그와 더불어 天位를 함께하지 않았으며 그와 더불어 天職을 다스리지 않았으며 그와 더불어 天祿을 먹지 않았으니, 이는 士가 賢者를 높이는 것이고 王公이 賢者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弗與共天位也 弗與治天職也 弗與食天祿也 士之尊賢者也 非王公之尊賢也〕”라고 보인다.

子産¹⁾이 聽鄭國之政할새 以其乘輿로 濟人於溱洧한대 孟子曰 惠而不知爲政²⁾이라하시니 蓋君子之爲政에 立善法於天下면 則天下治요 立善法於一國이면 則一國治어니와 如其不能立法하고 而欲人人悅之면 則日亦不足矣리라 使周公이 知爲政이면 則宜立學校之法於天下矣니 不知立學校하고 而徒能勞身하야 以待天下之士면 則不唯力有所不足이라 而勢亦有所不得也리라 周公亦可謂愚也³⁾리라

子産이 鄭나라의 政事を 주관할 때에, 겨울에 溱水와 洧水에서 자기가 타는 수레로 사람들을 건네준 일이 있었는데, 孟子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은 가졌으나 정치를 제대로 할 줄은 모르는 행위이다.” 하셨다.

대체로 君子가 政事を 주재하게 되어 천하에 좋은 法을 세우면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一國에 善한 法을 세우면 一國이 잘 다스려지게 된다. 만약 좋은 법을 세워놓지 못하고서, 사람마다 그를 좋아하게 하려 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